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행복한 자여 기뻐하라

(마 5:1-12)

Happy People, Rejoice!

(Matt 5:1-12)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낙원’이라고 불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가는 일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단어는 ‘기쁨’ 이었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ll people hope to be happy. There is no exception concerning this fact. We live our life by doing our best in order to be better today than yesterday, and today better than tomorrow.

Moses said that there would be happiness and joy if we worship and serve God. David himself called God as his ‘paradise’, and said that he served God with joy.

The Bible says that if we follow Jesus Christ, that will be the greatest of happiness and joy, incomparable to anything else. For a few hours before Jesus was crucified, the vocabulary that Jesus Christ mostly mentioned was ‘pleasure,’ and he promised us ‘the pleasure in my mind fill your mind in abundance.’

In the text, Jesus says,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1. 행복의 조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것이 곧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makarios”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팔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팔복을 가리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너희도 꼭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산다면 선지자 반열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선지자 반열에 서게 될 자들이 바로 팔복을 매일의 삶에서 구현해 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들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소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눈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행복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condition of joy

We cannot experience real happiness and joy with worldly things. Yet, most people think that their happiness is to eat nutritious food, to wear nice clothes, and to drive a nice car.

However, Jesus says, “The poor in spirit, those who mourn, the meek,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the merciful, the pure in heart, the peacemakers, and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are happy and glad.

The word that Jesus used, ‘blessing’ means ‘makarios’ in Greek. But this word does not refer to the blessings for the people, but instead, the happiness for God.

The Beatitudes ultimately mean the life and nature of Jesus Christ. Accordingly, many theologians say that the Beatitudes refer to “the portrait of Jesus Christ.” Jesus in the Beatitudes says, “I hope you all more enjoy the happiness that I enjoy.”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at we must change our view of life, our values of life, and our view of the world. There must be a new life that we pursue.

2. Rejoice and be glad!

The reason why the saints must rejoice and be glad is that our reward in heaven is great. Moreover, if we live the life of the Beatitudes, we can join the ranks of prophets.

The prophet in the midst of prophets is Jesus Christ. Those who will stand on the ranks of prophets are the Christians who every day realize the life of the Beatitudes and take after Jesus.

My beloved Christians!

I hope the fragrance of Jesus Christ spreads in our smile, even in our tears. We are not the possession of ourselves, but we should verify happiness as an existence of our true selves. By not taking after the worldly things but Jesus Christ, and by looking at the reward in heaven,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us will rejoice and be glad.

2012년 섬김위원 임명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 3부 예배 후, 교구 총회 : 본당에서

오늘부터 2012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 할 모든 섬김위원(각 부서, 찬양대원, 교사) 및 남녀 서리 집사, 협동집사를 임명한다. 오늘 후보와 함께 배부된 2012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받아 2012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한다. 3부 예배 후에는 교구총회로 본당에서 모인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1]

(문 28)에서는 몇 명의 아내를 가졌으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답) : 창세기36장에는 에서의 아내가 세 명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을 보면 에서의 아내 이름이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입니다. 그런데 창26:34를 보면 '유딧', '바스맛'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창28:9에 또 한 여인의 이름인 '마할랏'이 나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유주의, 비평주의 학자들이 자료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나온 '아다'라는 여인은 헷 족속 중 엘론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26장에는 똑같은 헷 족속 중 엘론의 딸의 이름을 '바스맛'이라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창세기 36장의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 노보옷의 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창28:9를 보면 이스마엘의 딸 노보옷의 누이가 '마할랏'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36장의 '바스맛'과 창세기 28장의 '마할랏'은 동일인인가, 그리고 '아다'는 헷 족속 중 엘론의 딸이라고 했는데 창세기26장에서는 '바스맛'이라고 했으니 모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이런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영감설을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서에게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에서의 아내들도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 36:1-8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에서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고 9절 이하에서는 에서의 손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 산에 거하는 동안 손자들이 많이 출생하였습니까.

특히 에서의 아내 중 오홀리바마(창36:2,14)는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이 아니라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이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ben)은 딸(bat)과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하므로 필경사가 사본을 만들 때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인역(LXX)과 시리아 페시타(Syriac Peshitta)역에서도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고 읽고 있습니다. 세일의 아들 즉 시브온의 아들(창36:20,24)이 아나였습니다. 그로 아나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후에 중에는 족장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딘나와 같은 여성들이(창36:40,41) 족장 명단에 있다는 것은 특이한 일로 여겨집니다. (다음주 계속)

2012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접수 - 사무국

2012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접수받고 있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목회하는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여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한 구좌 10만원이다. (1/2구좌도 가능)

원하는 것이다.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운동으로 한 구좌를 10만원으로 하며,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다. 어린이, 청소년은 1구좌를 5,000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의식을 가질 수 있게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Vision2020 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 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인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있다. Vision2020 운동 후원금은 장병1인 세례경비(1구좌 5,000원 2구좌 10,000원)를 후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기도회 - 1월 7일(토) 오후 3:30 - 5:30
순결서약식 - 1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2년 순결서약식이 1월 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 를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 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펴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이며 이종운 원로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6년째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로 결혼전까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순결을 서약할 성도로 참가신청은 각 담당 교회학교에서 취합하여 12월 28일(수)까지 사무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기념품'이 주어진다.

신임 교역자 부임

오세광 목사 · 이신우 전도사

우리 교회 찬양사역과 청년2부를 담당할 전임교역자로 오세광 목사가,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이신우 전도사가 지난 주일(12월 4일) 부임하였다.

오세광 목사는 1971년생으로서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이신우 전도사는 1987년생으로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중이다.



◀오세광 목사
이신우전도사▶



제8기 서울음악교실 수료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

김영애3 김영애 이유희 조상계 김명순2 김철수 이해란1 황미숙 김은숙6 최시원2 박하람 김진숙 전배호

고등부 Calling

12월 17일(토) 오후 5시 30분

고등부는 오는 12월 17일(토) 오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친구초청잔치를 한다. 전도 대상자와 잃은 양, 그리고 교회는 나오나 고등부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고등부 찬양팀인 NLC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하며 고등부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등을 상영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권사회 앞치마 기증

제2권사회(회장 : 최미아 권사)는 식당에 앞치마 100벌을 기증하였다.

만민에게 전도

누가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이영수 장로 (전도위원장)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이 옛날에 비하여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구제의 갈증은 끝이 없고 받을수록 불평의 종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회 보장이 완벽하다는 나라의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단체가 도우니까 교회가 할 일은 없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천하고 가난한 가정으로 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체가 약한 자를 친구로 삼고 일생을 사셨습니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시대 사람들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느새 높은 지식과 지위가 높고 잘 사는 자의 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현금 드린 것으로 충성했다는 착각 속에 약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회에 발을 끊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세상에 섞여야 맛을 내고 빛이 어둔 곳에 가야 밝아집에도 소금끼리, 빛끼리 뭉쳐 있으니 세상은 썩

어가고 어둠이 짙어지며 교회를 향한 원망의 소리는 높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사는지 여부는 그 나라 백성들의 행복체감지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부요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재물은 녹이 슬고 불행의 짝이 자라는 것이지만 세상연락에 취하여 볼 수가 없고 위기감이 느껴질 때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교회가 사라진 유럽이 그러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이 미약해진 미국도 기울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한국의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드나드는 종교인은 많아도 참모습의 신앙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거룩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참 선지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축복 설교를 하는 교회에는 물밑듯이 물려들고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면 떠나거나 비난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는 사도 바울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

리기를 소원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즐겁게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닦아 주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작은 자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온 가족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신영신 성도(15교구)



먼저 8주간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해주신 새가족부 전도사님과 저를 담당하셨던 김영호, 이은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30여 년 동안 이사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교회를 옮길 일이 있었으나, 주중에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 집에 있는 남편과 애들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새가족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새가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던 차에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 두었냐고 의아해 했지만 저는 금전적인 것 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었습

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은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시와 수능을 치르면서 예전 같으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였을 것을,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도 본인이 실족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가 없다는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고 저는 오로지 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있었던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대학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수험생 어머니들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했지만 저는 너무 평온하게 지내고 있으며, 아들과 함께 기도하며 드디어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남편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생겨 더욱 절실히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날을 소망합니다.



Calling

12.17(토) 오후 5:30 - 101호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전 저희 서울교회 고등부에서 12월 17일 토요일 5시30분 친구초정 잔치 행사 "Calling"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 한 주위의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 친구들을 초대하고, 예배만 드리고 고등부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더욱더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등부의 임원들과 각 부서 리더들이 준비한 이번 행사는 고등부 찬양팀인 NLC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하며,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준비한 무언극 "My Everything", 고등부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상영 및 대학부 워십 찬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은혜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자 준비한 행사인 만큼 열심히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Calling" 행사에 중등부, 고등부학생들, 대학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하려합니다. 12월 17일 토요일 5시30분부터 8시 서울교회1층 웨스트민스터홀에 오셔서 준비된 모든 행사에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로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박애원(고등부 회장)

